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별 2길 6번지

전북 현안 해결 숨가쁜 일정 소화

김관영 도지사, 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서 현안 설득
최병관 부지사, 환경부·문체부서 국비지원 타당성 설명

전북자치도,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상황 등 예의주시
현안법안 통과 등에 정치권·시군과 공조 체제 구축키로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현안법안 및 국가예산 등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현안 법안 및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도형 도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계획을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사진 3면)

이어 김관영 도지사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찾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는 새만금 신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 조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은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제21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26일 국회를 방문해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을, 2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환경부와 문화체육부를 찾아 신규사업 발굴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2025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만나 △섬진강댐(정읍권) 광역상수도 비상연계 구축사업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진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섬진강, 금강 유역의 효율적인 수해 예방과 신속한 수해 대응·복구를 위해 국가하천 관리업무 일부에 대한 이관(영산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을 요청했다.

최병관 부지사는 이어서 만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에게 2023년 5월 24일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할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기록관'에 대한 건의를 건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개최 상황과 부처별 예산편성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법안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등에 정치권 및 시군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향후 실국에서도 부처를 비롯해 국회를 찾아 설명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등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관계로
신문은 5월 2일 발행합니다.

'개원 10년' 태권도원, 100년 도약 준비

T1 경기장서 기념식

태권도인 성지로 발전시킨
태권도진흥재단에 감사패
2014년 개원 이후 10년간
스포츠 관광 활성화 구심점

무주군에 위치한 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이 29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 등은 이날 10년의 준비시기를 마치고, 100년의 도약을 위한 무주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태권도인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주관한 '무주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관영 도지사, 황인홍 무주군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조영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 태권도 4개 단체장과 해외사범, 올림픽 메달리스트, 원로·고단자 등이 참석했다.

무주 태권도원은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공간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유산이다. 또한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세계 태권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와 체험, 수련, 교육, 연구 등 태권도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한 공작 공간을 태권도 종주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국내외 태권도인 및 일반인들이 꼭 가봐야하



29일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무주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관영 도지사, 황인홍 무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이종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떡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

는 전북의 소중한 자산이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 지난 10년간 태권도원 운영을 비롯해 태권도 진흥·보급·보존에 지대한 역할로 태권도원을 세계태권도인들의 성지로 발전시키고, 전북자치도가 태권도 종주도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에 개원한 태권도원은 태권도 전용 경기장인 T1경기장을 비롯해 박물관, 복합체간으로 태권도 종주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국내외 태권도인 및 일반인들이 꼭 가봐야하

10년간 250여만명이 다녀가 국가인 태권도 교육·훈련 성지로서 태권도 저변 확대와 스포츠 관광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내외 대회 및 문화콘텐츠 육성지원, 태권도원 주변 관광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태권도인과 모든 국민이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축사에서 "지난 10년의 준비시기를 갖추고 태권도의 더 큰 발전과 진흥을 위한 100년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에 전북자치도도 적극 함께 하겠다"며, "세계인이 사

랑하는 이 태권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신을 깊이,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태권도원이 성지이자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특히 태권도인들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030년 태권도원 방문객 100만명을 목표로 무예이자 스포츠로서 태권도가 더욱 굳건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재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하얀 가운 벗어던진 원광대병원 의료진... 100여명 사직서 제출

원광대학교병원 소속 교수들이 결국 하얀 가운을 벗어던졌다. 특히 100여명의 의료진들은 물론 의대교수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원광대병원 4층 대강당.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한데 모였다.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하얀 가운을 벗어던졌다. (관련사진 2면)

비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교수 155

주1회 휴진 당분간 진행... 의대정원 증원 절차 관련 법적대응 시사

명 중 110여명이 병원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결재되지 않아 사직서를 대학에 재차 제출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주1회 휴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홍제 비대위원장은 "2개월간 의대 교수들은 주중에 5일 근무뿐 아니라

교대로 주중 야간 당직과 주말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실문조사 결과 의교수들은 이 기간동안 70% 이상이 주 7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교수진들은 이미 체력적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근무를 이어갈 경우 환자에게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교

수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 1회 휴진 배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복귀가 없다면 주 1회 휴진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사직서와 관련해서는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환자 진료 등 의사의 책무를 다한 뒤 병원과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대학본부의 의대정원 증원 절차와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김재훈 기자



이 광고는 한국인문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살맛나는 행복쇼핑

도행축제 2024

K-SHOPPING FESTA

2024.5.1-5.28



홈페이지
k-shoppingfesta.org